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 이통3사 신규 요금제(안심옵션(QoS) 적용 상품) 도매제공 및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개선(QoS 적용,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
- 중고폰 등 중저가·자급제 단말 활성화 및 eSIM 고시 반영 추진
-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적용 및 연내 경쟁환경 평가 실시

▲ 양적 성장(1.0) 넘어 질적 도약(2.0) 위해 제도·생태계 정비

- 자체설비 보유 투자 통해 다양한 요금제·차별화된 서비스 설계가 활발해지도록 제도(시행령·고시) 개선 및 정책금융 연계
- 부실(이용자보호 등)·한계 기업 정비기준 마련 및 점검 병행

⇒ 알뜰폰 가입규모 지속 확대 및 지속가능·건전 생태계 조성

⇒ 설비 보유 알뜰폰사(부분 또는 Full MVNO) 3개 이상 확대 목표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31일(금)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그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자가 진입하고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에는 요금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차별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온 '알뜰폰 1.0'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의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가격】 지속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반 마련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합리적 가격의 단말'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단말·가입절차의 일괄 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금번 개편된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 적용 상품)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한다(수익배분 방식(RS), 8월부터 단계적). 아울러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부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하였다(약 15종에 대해 1~3%p, 이통3사별로 상이). 또한,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50→90%),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 QoS: Quality of Service

※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기대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25. 5월 제도 도입 1년 만에 47개사가 약 110만개의 인증 중고폰 거래('26. 5월말 기준)

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2. 【혁신·다양성】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MVNE: 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 마련,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 △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 △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도매제공 고시 및 상호접속 고시 등

3. 【신뢰】 이용자 보호체계 고도화로 시장 신뢰 회복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센터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알뜰폰은 지난 15년간 저렴한 요금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3+)」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

【 별첨 】 이동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 - 알뜰폰 2.0 도약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규철	(044-202-6640)
		담당자	사무관	김휘제	(044-202-6645)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4-202-6650)
		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044-202-6655)
			사무관	김동현	(044-202-6651)
			사무관	심인보	(044-202-6657)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장(代)	홍사찬	(044-202-6620)
		담당자	사무관	김성목	(044-202-6664)
관련 부서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지현	(044-202-4920)
		담당자	사무관	김미애	(044-202-49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은경	(02-2100-3170)
		담당자	서기관	박현선	(02-2100-3171)

